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05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러시아, 극동지역 연쇄 폭탄테러 협박사건 발생

- 5.6 러시아 보안당국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·25개 학교·유치원·극동연방대학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접수, 보안요원과 軍병력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 未발견

* 同日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스키의 초등학교가 허위 폭발물 신고로 오전 수업 중단

미주

○ 캐나다, 네오나치 반테러법 적용 첫 기소

- 5.6 연방경찰은 온라인으로 극우 네오나치 단체 '아툼와펜 디비전'에 가입하고,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증오선동 및 주택파손 등 증오범죄를 저지른 「버트랜드」(19세)에 대해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

* 캐나다에서 네오나치 단체 회원이 테러범으로 처벌된 사례 전무

○ 美, 뉴욕 지하철 총기난사범 '테러혐의' 적용

- 5.8 美 연방법원(배심원단)은 4.12 뉴욕市 지하철에서 연막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하여 10여 명을 부상케 한 「프랭크 제임스」에 대해 테러혐의로 기소를 결정

* 범행동기를 정확히 규명하지는 못했으나 同人이 수년 간의 실직상태에서 최근 흑인차별에 대한 극단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

아 · 태평양

- 질병관리청, 英 방역당국과 테러 대응 협력체계 구축
 - 5.4 질병관리청은 영국 보건안보청*(UKHSA)과 △생물 및 화학 테러 대비·대응 △감염병 감시와 위험평가 △병원체 정보와 자원관리 등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
 - * 감염병과 생물테러, 화학사고 등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으로 '21.10월 개청
- 인천세관, 국가기관 최초 3D X-ray 운용
 - 5.3 인천본부세관은 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탑승객들의 반입 물품을 3D로 스캔할 수 있는 3D X-ray 검색 장비를 국가기관 최초로 가동한다고 발표
 - * 인공지능으로 폭발물을 감지·판독하고, 360도 투시화면을 고해상도 3D 이미지로 표출
- 유엔, 라마단 기간 아프간 주민 대상 테러 강력 비난
 - 5.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라마단 동안 아프간에서 소수 종파 및 민족을 겨냥한 공격이 빈발하자, 테러를 '최악의 범죄행위'라고 비난하며 모든 회원국들의 강력대응 촉구
 - * 4.22 쿤두즈주 모스크 폭탄테러(사망 25), 4.29 카불市 모스크 폭탄테러(사망 30) 등 발생
- 알카에다 수장, 「빈 라덴」 사망 11주기 메시지 발표
 - 5.6 알카에다 수장 「알 자와히리」는 초대 지도자 「오사마 빈 라덴」 사망 11주기 영상 메시지를 통해, '미국이 9·11을 계기로 시작한 이라크·아프간戰 패배로 경제난을 겪으며 쇠퇴중'이라며 무슬림의 단결 촉구
 - * 美 정부는 「알 자와히리」 체포에 2,500만달러(약304억원) 현상금 제시

아프리카

- 이집트, 미국과 '대테러 협력 강화' 추진
 - 5.9 「엘시시」 이집트 대통령은 「쿠릴라」 美 중부군사령관과 면담한 가운데, 최근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ISIS 대응강화, 미군 특수부대 파견 검토 등 양국간 대테러 협력방안 논의
 - * 5.7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ISIS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수에즈운하 검문소를 공격해 군인 11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, 최근 同 지역 발생 테러중 최대 피해 기록

아프간, 카불市 학교 인근 연쇄 폭탄테러

- '21.5.8 아프간 수도 카불市의 한 학교 인근에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, 여학생 등 최소 68명이 사망하고 165명 부상
 - * 同 테러는 美 「바이든」 대통령이 '21.9.11까지의 아프간 주둔 자국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5.1부터 실질적 철군을 개시한지 1주일 만에 발생
- 사건 당일, 학교 근처에서 폭탄을 적재한 차량이 1차 폭발 후 학생들이 현장에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친 추가 폭발 발생
- 아프간 「가니」 대통령은 이번 테러의 주체로 탈레반을 지목했으며, 美 「월슨」 대사 대리는 “이번 테러는 아프간 미래에 대한 공격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”라고 비난
 - * 「쿠테흐스」 유엔 사무총장, 「프란치스코」 교황도 이번 사건을 강력 규탄
- 한편, 아프간 정부로부터 이번 테러의 주체로 지목받은 탈레반은 연루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 사건을 비난하면서, “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IS에만 있다”고 주장

< 탈레반(Taliban) >

- **(결성)** 아프간 공산정권 붕괴('92.4) 후 시작된 내전중 「물라 오마르」가 '94.8 칸다하르 州 마드라사(이슬람 神學校) 학생들을 규합하여 결성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정치조직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'13.5 캐나다 / UN·美·英 등은 테러단체로 미지정
- **(활동)** '96.9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나 '01.10 아프간戰 개전으로 축출 → 게릴라戰·테러 등으로 저항하다 '20.2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→ '21.8 미군 현지 철수 및 기존 아프간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아프가니스탄 再집권
 - '21년 再집권 이후, 국가운영 정상화에 노력중이나 ISIS-K(ISIS-호라산 지부)의 테러공세 강화, 反탈레반 세력 활동 등으로 정국 불안 지속
 - 또한, 지속되는 대테러의지 및 인권보호에 대한 의심증폭과 해외 자산동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정부 승인 지연과 경제악화로 위기에 직면